기획시리즈

새로운 조경수(ⅢXⅥ)

—오동나무—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 종류와 생육특징

오동(梧桐)나무 속은 주로 동남아시아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동나무는 수고 15~20m, 직경 80cm 까지 자라는 교목(喬木)으로 조경수로 써보다 목재 이용의 목적으로 식재하여 왔다. 우리나라에는 참오동나무와 오동나무의 두 종이 자생하고 있고, 1970년대 초반에 대만(台湾)에서 구중동(九重桐)이란 오동나무가 도입되어 대대적으로 식재되었으나, 내한력(耐寒力)과 내병충력(耐病蟲力)이 약해서 거의 고사(枯死)해 버리고 현재는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참오동나무의 개화 전경

오동나무류는 내조력(耐潮力)과 내공해력(耐公害力)은 강한편이고, 내한력(耐寒力)은 보통이며, 내음력(耐陰力)은 약하다. 유묘시(幼苗時)에는 군집성(群集性)인 편이나 생장함에 따라 단목성(單木性)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식재(集團植栽)는 금물(禁物)이며 토심이 깊고, 비옥, 적윤(適潤)한 사질 양토에서 잘 자란다.

〈표 1〉 오동나무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영 명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KEI	チョウセンキリ	Korean Paulowina
참오동나무	Paulownia tomentosa STEUD	キリ	Royal Paulowina

〈표 2〉 수종별 특성

수 종 명	잎과 가지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오동나무	• 수고 15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 수교목(落葉濶葉樹喬木) • 잎은 대생(對生)하며, 길이 15~30cm 넓이 12~29cm • 잎은 원형에 가깝고, 가끔 오각형이 되기도 하며, 첨두(尖頭), 심장저(心藏底)임. •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으나, 맹아(萌芽)의 잎에는 톱니가 있음. • 잎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에는 갈색털이 있음. • 공동(空同)으로 된 엽병(葉柄)의 길이는 9~20cm로 표면에 잔털이 있음.	• 꽃은 5~6월에 자주색으로 핌. • 화서는 원추 화서(圓錐花序) • 화서의 길이는 20~30cm • 화관(花冠)은 깔대기 비슷한 종형(鍾形)이며, 화관의 길이는 5~6cm •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 열편(裂片)은 긴 난형(卵形)이고, 첨두(尖頭)이며, 양면에 잔털이 있음. • 열매는 난형첨두며, 털이 없고, 길이 3cm로서 10월에 익음. • 열매는 삭과(蒴果)로 날개가 달린 소립 종자(小粒種子)가 많이 들어 있음.	평안 남도 이남	토심이 깊고, 비옥한 사질양토의 양지
참오동나무	오동나무와 비슷하나, 크게 다른점은 • 잎 표면에 백색털이 있음. • 잎 뒷면에 갈색털 대신에 흰털이 있음. • 잎 가장자리에 큰 톱니가 2~6개 정도 있는 경우가 많음. • 잎의 길이 20~40cm이고, 넓이 15~30cm로 오동나무보다 큼.	대부분의 특징이 오동나무와 같으나, • 꽃색이 연한 자주색. • 화관에 자주색 빛이 도는 점선이 종으로 있는 것이 다른 점임.	중부 이남	토심이 깊고, 비옥한 사질양토의 양지

○ 조경수로써의 활용가치

오동나무는 특수용재 생산을 목적으로 식재하여 어떻게 하면 곧고, 마디가 없는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조경수로써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조경수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 5~6월에 담자색 꽃이 피어, 나무 전체를 덮고 있는 모습

▲참오동나무의 열매.

은 어떠한 조경수에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벌꿀같이 달콤하고, 짙은 꽃향기는 조경수로써의 가치를 한층 더해준다.

오동나무는 단목성(單木性)이여서 집단 식재는 피해야 하고, 교목(喬木)으로 생장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식재장소에 따라 가지의 높이와 수형을 조정하면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오동나무의 꽃과 화서.

○ 번식 및 양묘방법

오동나무의 번식은 뿌리 삽목(揷木)과 종자의 파종으로 번식할 수 있으나, 옛날에는 주로 뿌리 삽목으로 번식하여 왔고, 1970년대에 들어 와서 종자에 의한 실생묘양성법(實生苗養成法)이 개발되어 묘목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뿌리삽목은 기성목(旣成木)에서 직경 1~3㎝ 되는 뿌리를 굴취하든가, 오동나무 묘포에서 오동나무 묘목을 굴취한 다음 끊어진 뿌리를 굴취하여 길이 10~15㎝정도가 되게 잘라, 삽목상에 20~30㎝ 간격으로 75도의 각도로 비스듬히 인내봉(案內棒)으로 삽수길이 정도 깊이로 구멍을 뚫은 다음, 지표면과 같은 깊이로 삽수를 밀어 넣든가, 뿌리를 3~5㎝ 길이로 절단하여 삽목상에 골을 파고, 10~20㎝ 간격으로 뿌리고, 그 위에 2~3㎝ 두께로 복토(覆土)를 해준다.

종자에 의한 실생묘양성(實生苗養成)은 10월에 열매를 채취하여 종자를 탈각한 다음, 기건 상태(氣乾狀態)로 보관하였다가 3월 경에 비닐하우스내에서 파종한다. 종자가 세립(細粒)이기 때문에 파종상에 이끼나 질석(Vemicu-lite)을 2~3㎜의 두께로 고루 깔고, 그 위에 파종을 한 후, 흙을 덮는 대신 물을 충분히 주어서 종자를 정착시킨다. 파종상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탄저병(炭疽病)이며, 2~3일 간격으로 예방약제를 살포하고 비를 직접 맞지 않게 하고, 파종상에서 묘목이 10㎝ 정도 자라면 본포(本舖)에 이식한다.